<h1>나 혼자만 레벨업-92화</h1>  
  
  
 <div class="fdc9ed957c6">  
  
  
  
   
  
   
  
   
<p>92화</p>  
<p>선수는 우진철이 쳤다.</p>  
<p>다들 눈치를 살피는 사이, 진우 옆으로 다가간 그가 자신의 신분증을 꺼내 들어 헌터들에게 보여 준 것이다.</p>  
<p>"협회 감시과에서 나왔습니다."</p>  
<p>상급이든, 하급이든 헌터들은 감시과라는 이름을 들으면 긴장하기 마련.</p>  
<p>작전은 주요했다.</p>  
<p>차해인을 제외한 헌터스 길드원들의 얼굴에서 잠깐이지만 긴장된 기색이 스쳐 지나갔다.</p>  
<p>우진철은 그 틈을 타 매끄럽게 말을 이었다.</p>  
<p>"여기 계신 성진우 헌터님의 신원은 저희 협회에서 전담해 관리하고 있으며, 외부로 일체 발설할 수 없는 상급 기밀 사항입니다."</p>  
<p>진우는 우진철의 연기력에 혀를 내둘렀다.</p>  
<p>표정과 말투가 너무 자연스러워서 미리 거울을 보고 연습해 온 대사가 아닐까 생각됐을 정도였다.</p>  
<p>하지만 그의 의도만은 확실하게 전해졌다.</p>  
<p>마침 우진철이 진우에게 눈빛으로 살짝 사인을 보내왔다.</p>  
<p>'이곳에서 시끄럽지 않게 나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.'</p>  
<p>왜 감시과에서 자신을 돕는지는 모르겠으나, 알아서 뒷정리해 주겠다는데 마다할 필요가 있을까?</p>  
<p>진우가 고개를 끄덕였다.</p>  
<p>바라던 바였다.</p>  
<p>눈치 빠른 우진철의 부하 직원들이 금방 진우의 주위를 에워쌌다.</p>  
<p>"질문이 있으시다면 차후 협회를 통해서 해 주십시오. 성진우 헌터님은 저희가 모셔 가겠습니다."</p>  
<p>이견은 받지 않겠다는 뉘앙스가 팍팍 풍겨져 나왔다.</p>  
<p>쇠도 잘라 버릴 것 같은 우진철의 단호한 태도에 진우에게 하고 싶은 말, 묻고 싶은 말이 가득했던 헌터스의 헌터들은 전부 꿀 먹은 벙어리가 되었다.</p>  
<p>"가시죠."</p>  
<p>진우는 감시과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헌터들을 지나쳐갔다.</p>  
<p>'고맙기는 한데...'</p>  
<p>조금 묘한 기분이 들었다.</p>  
<p>왜 우진철 과장이 부탁하지도 않은 일을 하는 걸까?</p>  
<p>헌터들과 거리가 조금 벌어진 후 조용히 물었다.</p>  
<p>"갑자기 이러는 이유가 뭡니까?"</p>  
<p>"혹시 헌터님께서는 헌터스 길드에 들어가실 생각이십니까?"</p>  
<p>진우는 고개를 저었다.</p>  
<p>그럴 줄 알았다는 듯 우진철은 재빠르게 대답했다.</p>  
<p>"방금 헌터님께서는 대한민국에서 자금과 직원이 가장 많은 길드 앞에서 S급을 능가하는 힘을 보이신 겁니다. 귀찮은 일을 피하시려면 이 방법이 최선입니다."</p>  
<p>하기야.</p>  
<p>여유가 넘치는 헌터스 길드라면 S급 헌터 하나를 확보하기 위해 어떤 공을 들일지 아무도 모른다.</p>  
<p>다른 헌터들이라면 쌍수를 들고 환영하겠지만, 진우는 달랐다.</p>  
<p>그리고 그건 헌터협회도 마찬가지였다.</p>  
<p>특정 길드에 힘이 집중되는 일을 막으려는 협회와 길드들의 구애(?)가 귀찮은 진우의 이해가 일치했다.</p>  
<p>한쪽의 일방적인 호의라면 모를까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이런 상황은 부담스럽지 않았다.</p>  
<p>'협회 덕분에 편하게 됐네.'</p>  
<p>일이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잘 풀린 까닭에, 진우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.</p>  
<p>그렇게 보스방 입구를 막 빠져나가려고 하는데.</p>  
<p>"자, 잠시만요!"</p>  
<p>뒤에서 급한 외침이 들려왔다.</p>  
<p>무심결에 돌아보니 손기훈이 덩치 큰 동료의 부축을 받아 이리로 오고 있었다.</p>  
<p>상처는 말끔히 치료됐지만 피를 많이 흘린 탓인지 안색이 창백했다.</p>  
<p>'움직이지 않는 게 좋을 텐데.'</p>  
<p>진우의 걱정에도 불구하고 손기훈은 기어이 진우 앞에 섰다.</p>  
<p>그러고는 고개를 깍듯이 숙였다.</p>  
<p>"감사합니다."</p>  
<p>이어 손기훈은 가식 없는 본심을 털어놓았다.</p>  
<p>"헌터님 덕분에 저희가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. 공격대 전원을 대신해 제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."</p>  
<p>감시과 헌터의 말을 따르면 저 사람에게는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서는 안 될 무슨 사정이 있는 듯했다.</p>  
<p>'그 정도 힘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사정이 있어도 이상하지 않다.'</p>  
<p>그런데.</p>  
<p>정체가 발각될 위험까지 무릅쓰고서 자신과 자신의 대원들을 도왔다.</p>  
<p>어디 그것뿐인가?</p>  
<p>그는 아무 대가도 요구하지 않았다.</p>  
<p>헌터스 길드에 마수들의 사체나 공격대의 목숨값을 청구할 수 있었는데도, 군말 없이 물러났다.</p>  
<p>이러니 어찌 허리를 굽히지 않을 수 있을까?</p>  
<p>"...감사합니다!"</p>  
<p>감정이 격해진 손기훈이 다시 한번 허리를 90도로 숙였다. 갑작스러운 움직임에 몸이 비명을 질렀지만 그것마저 달가웠다.</p>  
<p>마수에게 농락당한 자신을 대신해 그가 마수를 똑같은 방법으로 처치해 줬을 때, 가슴이 울컥했었다.</p>  
<p>그 순간을 떠올리면 이까짓 '감사하다'는 말 정도는 골백번도 더할 수 있었다.</p>  
<p>공격대 헌터들은 고개 숙여 인사하는 자신들의 리더를 보고, 그제야 혼란스러움에서 벗어났다.</p>  
<p>'저 사람이 아니었으면...'</p>  
<p>'생명의 은인이잖아?'</p>  
<p>'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멍하니 보고 있을 게 아니라.'</p>  
<p>모두 앞다투어 달려와 고개를 숙였다.</p>  
<p>"고맙습니다, 짐꾸... 아니, 헌터님."</p>  
<p>"진짜 헌터님 아니었으면..."</p>  
<p>"덕분에 제 마누라가 과부 신세를 면했네요."</p>  
<p>손기훈이 공략 포기를 결정했을 때 손을 내보이며 엄살을 떨었던 어린 남자 헌터는 눈물을 글썽이며 다가왔다.</p>  
<p>"헌터님 저기... 너무 고마워서 그러는데 제가 한번 안아 드려도 될까요?"</p>  
<p>"에이, 너무 갔다."</p>  
<p>"쟤 또 저러네. 누가 좀 말려 봐."</p>  
<p>"그럼 형이라도 안아 주던가!"</p>  
<p>와락.</p>  
<p>"으헉! 소름 끼치니까 떨어져!"</p>  
<p>와하하하하-</p>  
<p>이번 A급 던전에 들어오고 처음으로 공격대 멤버들 사이에서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.</p>  
<p>진우도 그런 헌터들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봤다.</p>  
<p>공치사를 위해 그들을 도운 것은 아니었지만, 진심으로 감사하는 모습에 미소가 저절로 새어 나왔다.</p>  
<p>"아."</p>  
<p>진우는 구석에서 팔딱팔딱 뛰며 기뻐하는 여힐러에게 다가갔다.</p>  
<p>'체구가 작아서 뒤에 서 있으니 잘 보이지도 않네.'</p>  
<p>그녀에게 받았던 수첩을 내밀자, 여힐러는 얼굴을 붉히며 두 손으로 다소곳이 받아들었다.</p>  
<p>"고, 고맙습니다..."</p>  
<p>여힐러는 그러면서 속으로 얼마 전의 자신을 구박했다.</p>  
<p>'아휴, 괜히 그런 말을 해 가지고.'</p>  
<p>자기 전에 떠오르면 이불을 차야할 일이 하나 더 늘었다.</p>  
<p>던전 보스를 손쉽게 때려잡는 짐꾼 씨 입장에서는 유서랍시고 메모를 해 건네주던 자기가 얼마나 우스워 보였을까?</p>  
<p>슬쩍 고개를 들어 보니 다행히 비웃고 있지는 않았다.</p>  
<p>아니, 오히려 약간은 엄한 목소리가 나왔다.</p>  
<p>"힐러님."</p>  
<p>"네?"</p>  
<p>여힐러가 태도를 지적당한 학생처럼 고개를 번쩍 들었다.</p>  
<p>"앞으로 공격대 짐가방에 개인 소지품 넣지 마세요. 부피 늘어나니까."</p>  
<p>"네?"</p>  
<p>여힐러가 할 말을 잃고서 눈을 동그랗게 떴다.</p>  
<p>진우는 씩 웃었다.</p>  
<p>하고 싶은 말은 다 했다.</p>  
<p>저쪽도 대충 하고 싶었던 말은 다한 듯 보였다.</p>  
<p>그래서 벙 쪄 있는 여힐러를 뒤로 하고서 쿨하게 돌아섰다.</p>  
<p>"갑시다."</p>  
<p>진우가 발을 떼자 기다리고 있던 감시과 헌터들도 같이 움직였다.</p>  
<p>유일하게 한 사람.</p>  
<p>'아...'</p>  
<p>진우에게 말을 붙이지 못했던 차해인만이 손을 뻗으려다가 그만두었다.</p>  
<p>'연락처라도 물어보고 싶었는데...'</p>  
<p>그냥 조금만 시간을 내줄 수 없을지 묻고 싶었던 것뿐이다.</p>  
<p>하지만 아직 상황이 정리되지 않은 현시점에서 당사자에게 그 말을 하기에는 오해의 여지가 많았다.</p>  
<p>그때.</p>  
<p>여자 헌터 하나가 차해인에게 다가왔다.</p>  
<p>"저기... 부사장님."</p>  
<p>"네?"</p>  
<p>차해인이 돌아보자 여자 헌터는 차해인의 손끝을 가리켰다.</p>  
<p>"곡괭이는 왜 들고 오셨어요?"</p>  
<p>들어 올린 곡괭이의 머리 부분을 바라보던 차해인의 얼굴이 점점 불그스름하게 변해 갔다.</p>  
<p>그녀는 곡괭이를 내리고 물었다.</p>  
<p>"저 이상하게 보였을까요?"</p>  
<p>여마법사는 고개를 갸웃하며 되물었다.</p>  
<p>"누구한테요?"</p>  
<p>그러자 차해인의 얼굴이 목덜미까지 붉게 변했다.</p>  
<p>게이트에서 막 나왔을 때였다.</p>  
<p>우진철이 시계를 보더니 물었다.</p>  
<p>"저희는 협회로 돌아갈 예정인데... 괜찮으시다면 헌터님도 같이 가셔서 협회장님과 식사라도 하시겠습니까?"</p>  
<p>"지금 몇 시죠?"</p>  
<p>"5시 15분입니다."</p>  
<p>'음...'</p>  
<p>빠듯하긴 해도 아직 늦지 않게 도착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.</p>  
<p>진우는 우진철의 제안을 정중히 사양했다.</p>  
<p>"선약이 있어서 이만."</p>  
<p>\*\*\*</p>  
<p>씁씁, 후후.</p>  
<p>유진호는 어떤 영화에서 본 대로 깊은 심호흡을 하며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.</p>  
<p>'운명의 시간이 다가온다.'</p>  
<p>형님의 선택에 따라 자신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다.</p>  
<p>며칠 전, 유진 길드를 맡겨 달라고 아버지와 담판을 지었을 때보다 더 설레고 긴장됐다.</p>  
<p>'초심으로 돌아가자, 초심으로.'</p>  
<p>약속 장소로 형님과 처음 만났던 카페를 선택한 것도 우연이 아니었다.</p>  
<p>'형님의 도움이 아니었으면 내가 여기까지 올 수도 없었겠지.'</p>  
<p>그렇게 생각하고 카페 내부를 둘러보니 감회가 새로웠다.</p>  
<p>마침 위치도 그때 그 자리였다.</p>  
<p>딸랑.</p>  
<p>종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며 진우가 안으로 들어섰다.</p>  
<p>"형님!"</p>  
<p>진우를 발견한 유진호가 반가운 얼굴로 벌떡 일어나 깍듯이 허리를 굽혀 인사했다.</p>  
<p>진우는 간단히 눈인사로 대신하고 유진호의 맞은편에 앉았다.</p>  
<p>그제야 유진호도 앉았다.</p>  
<p>"무슨 일이야?"</p>  
<p>고개를 들던 유진호의 눈이 커졌다.</p>  
<p>"형님, 옷이...?"</p>  
<p>"아, 이거?"</p>  
<p>하이오크들과 싸우고 바로 이쪽으로 달려온 터라 옷이 좀 더러웠다.</p>  
<p>상의에는 하이오크 피까지 약간 튀어 있었다.</p>  
<p>진우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.</p>  
<p>"던전에 들렀다 바로 이리로 오느라."</p>  
<p>'헉!'</p>  
<p>유진호는 다시 한 번 놀랐다.</p>  
<p>형님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수준에 불과한 자신은 마스터 면허를 따고 난 뒤 술이나 마시며 시간을 보냈다.</p>  
<p>그런데 형님은 어떠한가?</p>  
<p>그렇게 강한 힘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아직도 틈틈이 던전에 들어가 수련을 하고 계시지 않나.</p>  
<p>자신이 부끄러워졌다.</p>  
<p>'역시 형님이시다...'</p>  
<p>그리고 동시에 형님이 한없이 존경스러웠다.</p>  
<p>옷에 튄 피를 닦지도 않고 그냥 다니시는 것 또한 수련의 과정을 숨길 필요를 느끼지 못할 만큼 당당하시기 때문이리라.</p>  
<p>'형님께 싸움의 흔적이란 스스로 얻어 낸 훈장 같은 거니까.'</p>  
<p>유진호가 굳은 표정을 지었다.</p>  
<p>형님이 내린 결정이라면 어떤 방향이든 두말없이 따를 준비가 됐다.</p>  
<p>그러니 있는 사실대로 말하자.</p>  
<p>"형님, 실은..."</p>  
<p>유진호는 그날 아버지와 있었던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진우에게 보고했다.</p>  
<p>고명환의 증언으로 레드 게이트에서 백호 길드의 헌터들을 구해 준 사람이 누군지 알게 되었다는 사실까지 전부.</p>  
<p>'그 아저씨, 쓸데없는 짓을...'</p>  
<p>그래도 나를 위해서 그랬다는데 화를 낼 수도 없고.</p>  
<p>어쩐지 레드 게이트의 이야기를 하는 유진호의 얼굴이 조금 상기되어 있었다.</p>  
<p>아무튼.</p>  
<p>유진호가 하는 말은 알았다.</p>  
<p>"그러니까 네가 유진 길드의 마스터가 되려면 내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지?"</p>  
<p>모든 이야기를 끝맺은 유진호가 차분히 진우의 대답을 기다렸다.</p>  
<p>평소처럼 촐싹대지도, 감언이설을 시도하지도 않았다.</p>  
<p>'상대는 형님이니까.'</p>  
<p>전적으로 형님의 뜻에 맡길 생각이었다.</p>  
<p>유진호의 고민만큼 깊은 침묵에 빠져 있던 진우가 아래로 내리고 있던 시선을 들어 올렸다.</p>  
<p>"진호야, 나는."</p>  
<p>꿀꺽.</p>  
<p>유진호는 마른침을 삼켰다.</p>  
<p>\*\*\*</p>  
<p>헌터스 길드의 최종인 사장도 연락을 받았다.</p>  
<p>하던 일도 내팽개치고 개인실로 들어가 목소리를 높였다.</p>  
<p>"예? 성진우가 어제 오늘 우리 레이드에 왔었다?"</p>  
<p>새로이 나타난 S급 헌터.</p>  
<p>그가 자신의 길드 앞에 떡하니 나타났는데 왜 그걸 몰랐을까!</p>  
<p>굴러 들어온 호박을 제 발로 걷어찬 것이나 다름없었다.</p>  
<p>복장이 터질 일이었지만.</p>  
<p>"예에? 어제는 채굴팀에 있었고 오늘은 짐을 날랐다고요?"</p>  
<p>...듣고 보니 모를 만했다.</p>  
<p>'일단 그가 무슨 생각으로 그랬는지는 접어 두자...'</p>  
<p>어차피 그걸 고민해 봤자 머리만 아프고 결론은 나오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.</p>  
<p>지금 중요한 건 그런 게 아니었다.</p>  
<p>'백호에 이어 우리 헌터스까지 도움을 받았군.'</p>  
<p>성진우에게 은혜를 입었다.</p>  
<p>그를 포섭하기 전에 최대한 동등한 위치에서 이야기하고 싶었는데, 이제 백호의 입장과 다를 바가 없어졌다.</p>  
<p>'그래도 10번째 S급의 존재를 먼저 안 게 어디야?'</p>  
<p>그래.</p>  
<p>도움을 받았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남자의 능력이었다.</p>  
<p>"성진우 헌터, 어떤 타입이었습니까?"</p>  
<p>-...</p>  
<p>수화기 너머의 설명을 듣고 있던 최종인의 말수가 차츰 줄어들었다.</p>  
<p>지금 통화를 나누는 상대.</p>  
<p>오늘 공격대의 리더를 맡았던 손기훈은 없던 사실을 말하거나 작은 일을 부풀려 말할 친구가 아니었다.</p>  
<p>그럼에도 반사적으로 말이 나왔다.</p>  
<p>"그게 정말입니까?"</p>  
<p>-네. 제가 본 건 그게 답니다.</p>  
<p>'그게 다라고...? 그럼 더 있을 수도 있단 말인가?'</p>  
<p>만약 그 남자가 그렇게 강하다면...</p>  
<p>"나와 비교하면 그 사람, 어떤가요?"</p>  
<p>조금 유치한 질문일지도 모르지만, 상대의 강함을 알기 위해서는 이만한 질문이 없었다.</p>  
<p>잠시 뜸을 들였던 손기훈이 말을 이었다.</p>  
<p>-대표님께서는 A급 중에서도 상위 던전을 혼자서 클리어하실 수 있으십니까?</p>  
<p>"...불가능하죠."</p>  
<p>-그런데 그 사람은 해냈습니다. 도우려는 차 헌터님을 말리면서까지.</p>  
<p>'차해인이 거기 있었다고?'</p>  
<p>조금 의아했지만 지금 그녀가 거기 있었는가는 큰 문제가 아니었다.</p>  
<p>"그 던전이 A급 상위 던전이 아니었을 가능성은 없습니까?"</p>  
<p>-그랬다면 저희가 애먹을 일도 없었을 겁니다. 그 사람이 저희 모두를 살렸어요.</p>  
<p>"..."</p>  
<p>최종병기로 불리는 남자, 최종인.</p>  
<p>어떻게 해석하면 무시당했다고도 볼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기분이 나쁘긴커녕 가슴이 두근거렸다.</p>  
<p>'나, 차해인. 그리고 성진우.'</p>  
<p>정말로 한국, 아니 아시아, 아니 성진우의 실력 여하에 따라서는 세계에서 이름을 날리는 길드가 될 수 있는 기회였다.</p>  
<p>-최 대표님. 제가 길드 운영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릴 입장은 아니지만...</p>  
<p>실제로 손기훈은 주제넘게 길드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나서는 성격이 아니었다.</p>  
<p>그래서 더욱 그가 할 말이 궁금해졌다.</p>  
<p>"아닙니다. 말씀하세요."</p>  
<p>-그 남자... 성진우 헌터님 꼭 모셔 오세요. 어쩌면 대표님의 꿈이 이뤄질지도 모릅니다.</p>  
<p>두근.</p>  
<p>최종인은 심장이 뛰었다.</p>  
<p>그는 떨리는 목소리를 들키지 않으려고 최대한 애를 쓰며 말했다.</p>  
<p>"노력해 보겠습니다."</p>  
<p>\*\*\*</p>  
<p>한국 협회 건물 앞.</p>  
<p>이민성을 취재하려고 몰려든 인파들이 협회 건물 앞에서 장사진을 이루고 있었다.</p>  
<p>한국을 넘어 아시아의 슈퍼스타라 불리는 이민성이 헌터가 된다!</p>  
<p>온 나라의 카메라들이 전부 여기로 향해 있다고 과언이 아니었다.</p>  
<p>발 디딜 틈도 없다 보니 기자들끼리의 신경전도 치열했다.</p>  
<p>"저기요! 여기 우리가 맡아 놨던 자린데요?"</p>  
<p>"이 사람아! 눈이 있으면 여기 몇이나 왔는지 봐. 니 자리 내 자리가 어디 있어? 서 있는 그 자리가 자기 자리지."</p>  
<p>"아오..."</p>  
<p>건물 안에서 유리 너머로 차도까지 밀려 있는 기자들을 바라보는 이민성의 만면에는 미소가 가득했다.</p>  
<p>"이 정도는 와야지."</p>  
<p>일부러 시간을 끌며 세간의 관심을 끌어모았던 보람이 있었다.</p>  
<p>"저기 민성 씨. 내일 헤드라인으로 이렇게 나갈 건데 민성 씨 생각은 어때?"</p>  
<p>한국 최고의 신문사 기자가 내일 1면에 게재될 원고를 보여 주며 물었다.</p>  
<p>"이걸 제목으로 쓰기엔 너무 밋밋하지 않아요?"</p>  
<p>"그래?"</p>  
<p>"흠... 이건 어때요? '모든 것을 가진 남자 이민성. 인간을 초월한 힘까지 손에 쥐다.'라던가?"</p>  
<p>"그렇게 멘트를 세게 치면 일부 독자들이 불편해하지 않겠어?"</p>  
<p>"제가 틀린 말한 것도 아니고, 또 한국에서 누가 감히 나를 욕하겠어요? 언론과 팬들이 두 눈 뜨고 지켜보고 있는데."</p>  
<p>"알겠어. 그럼 그걸로 할게."</p>  
<p>"잘 부탁드리겠습니다."</p>  
<p>이민성은 넉살 좋게 꾸벅 숙였던 고개를 들어 올리며 눈살을 찌푸렸다.</p>  
<p>'어차피 시키면 할 거면서 말은 왜 저리 많은지.'</p>  
<p>그때 협회 주차장에 두 대의 고급 외제차가 도착했다.</p>  
<p>탁.</p>  
<p>탁.</p>  
<p>거의 동시에 내린 두 사람은 백호 길드의 백윤호와, 헌터스의 최종인이었다.</p>  
<p>"어? 저기!"</p>  
<p>"백윤호다!"</p>  
<p>"최종인도 왔어!"</p>  
<p>문 앞을 가로막고 있던 기자들이 두 사람 곁으로 우르르 몰려들었다.</p>  
<p>백윤호와 최종인은 인상을 찌푸렸다.</p>  
<p>'뭐야, 이 기자들은?'</p>  
<p>'오늘 왜 이렇게 복잡해?'</p>  
<p>찰칵찰칵찰칵.</p>  
<p>카메라 플래시가 터져 나오는 소리가 요란했다.</p>  
<p>기자들은 두 사람을 둘러싸고 질문공세를 쏟아부었다.</p>  
<p>"두 분도 이민성 씨를 영입하기 위해서 협회에 들리신 건가요?"</p>  
<p>"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헌터로서 이민성 씨의 연예계 은퇴 가능성,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"</p>  
<p>"이민성 씨의 등급은 얼마나 나올 것 같습니까?"</p>  
<p>"이민성 씨에 대해 한마디씩 해 주세요."</p>  
<p>성격 급한 백윤호는 귀찮다는 듯 손을 훠이훠이 내저었고.</p>  
<p>"그 사람 때문에 여기 온 거 아닙니다. 할 말 없어요."</p>  
<p>최종인은 감정 없이 담담히 사실만을 늘어놓았다.</p>  
<p>"이민성 씨가 사신 길드와 계약했다는 건 업계 관계자라면 대부분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. 오늘은 다른 용무로 협회를 찾은 겁니다."</p>  
<p>기대에 못 미치는 대답들이 이어지자 기자들은 투덜거리며 돌아섰다.</p>  
<p>'에이, 뭐야.'</p>  
<p>'기삿거리가 좀 될 줄 알았더니.'</p>  
<p>'좋다 말았네.'</p>  
<p>그래도 S급 헌터 앞이라 대놓고 불만을 표시하진 못했다.</p>  
<p>기자들은 다시 자리를 잡고 이민성이 나오기만을 기다렸다.</p>  
<p>기자들이 떠나고서 백윤호와 최종인은 눈을 마주쳤다.</p>  
<p>백윤호가 먼저 알은체를 했다.</p>  
<p>"이야기는 들었습니다. 어제 헌터스'도' 큰일 날 뻔했다죠."</p>  
<p>일부러 '도'를 강조해 말하는 백윤호였다.</p>  
<p>"A급 신인까지 잃은 백호만큼 큰일 나긴 했겠습니까."</p>  
<p>기자들의 신경전 못지않게 두 사람의 신경전 또한 치열했다.</p>  
<p>잠깐 열을 올렸던 백윤호가 한숨을 살짝 내쉬더니 말했다.</p>  
<p>"어쨌든 우리와 헌터스 둘 다 그 사람의 도움을 받았군요."</p>  
<p>"천만다행이죠. 그가 없었다면 우리 정예 2군 팀이 전멸할 뻔했습니다."</p>  
<p>이미 서로 다 알고 있으면서도 마지막까지 이름을 언급하지 않는 것은 최후의 신경전이라 할 수 있었다.</p>  
<p>최종인이 백윤호에게 한발 다가갔다.</p>  
<p>"그래서 도의적으로 그분을 '꼭' 저희 길드에서 모시고 싶습니다."</p>  
<p>백윤호도 지지 않았다.</p>  
<p>백윤호는 최종인과 이마가 닿을 정도로 가깝게 다가갔다.</p>  
<p>"우리는 피해자까지 나왔습니다. 전력 보충 차원에서도 그분을 저희가 데려가야 하지 않겠습니까?"</p>  
<p>"대체 뭘 하시려고 전력 보충을 S급으로 합니까? 어디, 북한이라도 치러 가실 겁니까?"</p>  
<p>"그쪽이야말로 언제부터 그렇게 도의를 챙겼다고 도의를 말합니까, 도의를."</p>  
<p>두 사람의 눈빛에서 불꽃이 튀었다.</p>  
<p>'어?'</p>  
<p>기자회견 시간에 딱 맞춰 현장에 도착한 사신 길드의 마스터 임태규는 눈싸움하는 두 사람을 보고 히죽 웃었다.</p>  
<p>저런 걸 뭐라더라?</p>  
<p>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칫국부터 마신다든가?</p>  
<p>평소 두 길드에 재원을 뺏기기만 했던 임태규로서는 신나는 일이었다.</p>  
<p>자꾸 올라가는 입꼬리를 내색하지 않으려고 애쓰며, 임태규는 두 사람 곁으로 다가갔다.</p>  
<p>"어이, 두 사장님들. 설마 우리 민성이 때문에 그러고 있는 거야?"</p>  
<p>그러자 백윤호와 최종인이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동시에 임태규를 휙 돌아보았다.</p>  
<p>'뭐야 이 병신은?'</p>  
<p>'이민성인지 이민군지 관심도 없다니까.'</p>  
<p>자신을 노려보는 무시무시한 두 사람의 눈빛에 임태규는 흠칫 놀라며 저도 모르게 한발 물러섰다.</p>  
<p>'이놈들 이거 왜 이래?'</p>  
<p>\*\*\*</p>  
<p>"뭐야? 최종인에 백윤호까지?"</p>  
<p>이민성이 씩 웃었다.</p>  
<p>그 옆에 있는 임태규 사장은 계약하면서 안면을 익힌 상대였다.</p>  
<p>국내 1, 2위 길드를 두고 이전만 못하다는 평가를 듣는 사신 길드와 계약한 것도 사실 다 계산이 있어서였다.</p>  
<p>'그래야 약자의 편에 서는 이미지가 붙지 않겠어?'</p>  
<p>연예인은 속되게 말해 이미지를 팔아먹고 산다.</p>  
<p>이미지 관리만큼은 철저하게 하는 이민성이었다.</p>  
<p>'국내 최고의 길드들이 나를 두고 다툰다라...'</p>  
<p>오래 할 헌터 생활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자연스럽게 어깨에 힘이 들어갔다.</p>  
<p>곧 매니저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.</p>  
<p>"민성아, 준비 다 됐단다. 일단 인터뷰부터 시작하자."</p>  
<p>"예."</p>  
<p>매니저가 앞장섰다.</p>  
<p>유리문이 열리고 이민성이 협회 건물을 나와 모습을 드러내자 카메라 플래시가 무섭게 쏟아졌다.</p>  
<p>촤촤촤촤촤촤촤촤-</p>  
<p>이민성은 자신을 둘러싼 수백 개의 유리 눈들을 향해 으레 하던 것처럼 가식적인 미소를 지어 보였다.</p>  
<p>그때.</p>  
<p>진우가 협회 앞에 도착했다.</p>  
<p>'...?'</p>  
<p>사전에 들었던 대로 3일이 지난 오늘 협회에 방문한 참이었다.</p>  
<p>'뭐가 이렇게 복잡해?'</p>  
<p>그런데 이 상태론 도저히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았다.</p>  
<p>물론 은신을 쓰든, 기자들 머리 위를 뛰어넘든, 심지어 뒷문으로 돌아가든 얼마든지 지나갈 방법은 많았다.</p>  
<p>그런데 3일 전에 미리 재측정을 예약까지 하고 온 상황에서 멀쩡한 문을 두고 기자들을 피해 가야 한다는 사실이 마음에 안 들었다.</p>  
<p>'내가 무슨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.'</p>  
<p>정문으로 들어가지 못할 이유도 없었다.</p>  
<p>진우는 빼곡히 들어찬 기자들을 밀치고 억지로 길을 만들며 안으로 들어갔다.</p>  
<p>"좀 지나가겠습니다."</p>  
<p>"아이, 뭐야?"</p>  
<p>"아나, 이거 원."</p>  
<p>"쟤 뭐야?"</p>  
<p>S급 헌터의 완력이다.</p>  
<p>기자들은 속절없이 밀려나며 눈살을 찌푸렸다.</p>  
<p>순식간에 길이 열리고 진우는 협회 입구로 향하는 계단을 밟을 수 있었다.</p>  
<p>그런데 채 한 발을 내딛기도 전에 거구의 근육질 남자가 진우의 앞을 가로막고 섰다.</p>  
<p>"어이!"</p>  
<p>이민성의 매니저였다.</p>  
<p>그는 눈을 부릅뜨고 윽박질렀다.</p>  
<p>"너 뭐야? 협회 사람이야?"</p>  
<p>진우는 매니저의 시선을 조금도 피하지 않고서 고개를 저었다.</p>  
<p>'어쭈? 이놈 봐라?'</p>  
<p>매니저의 굵은 눈썹이 꿈틀거렸다.</p>  
<p>"지금 기자들 쫙 깔려 있는 거 안 보여?"</p>  
<p>진우는 잠시 기자들을 돌아보았다.</p>  
<p>다들 불만스러운 눈빛으로 이쪽을 노려보고 있었다.</p>  
<p>인터뷰로 바쁘다는 사실은 알겠다.</p>  
<p>하지만 길을 전세 낸 것은 아니지 않은가?</p>  
<p>개인이 기자들을 쫓아낼 수 없듯이, 기자들도 개인을 쫓아내서는 안 되는 게 상식이었다.</p>  
<p>그러나 보는 눈도 많은데 언성을 높이기는 싫고 해서 그냥 무시하고 지나치려 했다.</p>  
<p>그 순간.</p>  
<p>"돌아가. 여기 못 가. 가, 인마."</p>  
<p>다시 앞을 막고 선 매니저가 진우의 가슴팍을 밀었다.</p>  
<p>진우의 눈빛이 변했다.</p>  
<p>'뭐지?'</p>  
<p>매니저는 깜짝 놀랐다.</p>  
<p>D급의 전투 계열 능력자인 자신이 망신 좀 당해 보라고 힘을 줘서 밀었는데 상대는 다리에 못 박힌 듯 꼼짝도 않는 것 아닌가?</p>  
<p>일반인이면 크게 다칠 수도 있는 위력이었다.</p>  
<p>진우도 그 사실을 모르지 않았다.</p>  
<p>"..."</p>  
<p>그래서 그저 말없이 노려보는데, 그것만으로도 매니저의 얼굴이 조금씩 하얘져 갔다.</p>  
<p>"뭐야? 왜 저래?"</p>  
<p>"어떻게 된 거야? 둘이 시비라도 붙은 건가?"</p>  
<p>웅성웅성.</p>  
<p>기자들도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끼고 시끄러워졌다.</p>  
<p>매니저는 식은땀을 흘렸다.</p>  
<p>보는 눈이 없었다면 그냥 이쯤에서 한 수 접어주고 길을 비켰을지도 모른다.</p>  
<p>그런데 지금은 기자는 둘째 치고 고용인인 이민성이 보고 있었다.</p>  
<p>가까이 다가온 이민성이 인상을 쓰며 작게 말했다.</p>  
<p>"아, 형. 뭐야. 걔 빨리 치우고 끝내."</p>  
<p>"어... 그, 그래."</p>  
<p>여기서 잘못 보이면 직업을 잃을 지도 모르는 상황.</p>  
<p>매니저가 인상을 쓰며 목청을 돋웠다.</p>  
<p>"여긴 못 지나가니까 저리 가라고!"</p>  
<p>"누구 맘대로 여길 못 지나간다는 겐가?"</p>  
<p>'엇?'</p>  
<p>목소리는 앞이 아니라 뒤에서 들려왔다.</p>  
<p>매니저의 고개가 뒤로 돌아갔다.</p>  
<p>유리문 앞.</p>  
<p>거기엔 고건희 한국 헌터협회 회장이 떡 버티고 서 있었다.</p>  
<p>기자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.</p>  
<p>어찌나 놀랐는지 셔터를 누르는 것도 잊었을 정도였다.</p>  
<p>"고건희?"</p>  
<p>"고건희 협회장?"</p>  
<p>시끌벅적하던 일대의 분위기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인물의 등장으로 착 가라앉았다.</p>  
<p>고건희는 계단 앞까지 다가와서 말했다.</p>  
<p>"그분은 우리 손님입니다."</p>  
<p>고건희가 이민성을 바라보았다.</p>  
<p>"여기서 기자회견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해 준 게 누군지는 알고 있겠지요, 이민성 씨?"</p>  
<p>이민성은 정신이 번쩍 들었다.</p>  
<p>"무, 물론입니다."</p>  
<p>헌터가 된 첫날 협회장의 눈 밖에 나 기자회견 장소를 빼앗긴다.</p>  
<p>보는 눈이 몇 갠데 그런 바보 같은 꼴을 당할 수는 없었다.</p>  
<p>이민성이 얼굴을 찡그리며 매니저에게 눈치를 주자, 매니저가 고건희와 진우에게 차례대로 고개를 숙이고는 순순히 옆으로 물러났다.</p>  
<p>"들어가시죠, 성진우 헌터님."</p>  
<p>진우가 고건희의 안내를 받아 협회 건물로 사라지고 나자 기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.</p>  
<p>웅성웅성.</p>  
<p>"뭐야?"</p>  
<p>"저 사람은 누군데 협회장이 저렇게 알아서 챙겨?"</p>  
<p>"누구 방금 그 남자 아는 사람 없어?"</p>  
<p>기자들은 답답한 마음에 목소리를 높였으나 아무도 대답하는 사람은 없었다.</p>  
<p>=</p>  
  
 </div>  
  
  
  
 </div>  
  
  
  
 <div style="margin-top: 20px;">